



2026 VISION

흔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천도서 4장 9절]

충일교회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것은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시험 준비도, 운동도,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승리를 주신 장면입니다. 본문 28-43절에는 여러 성읍이 차례대로 무너지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막게다, 립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한 성읍이 무너질 때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쳐서 진멸하였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내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혹, 실패, 비교, 낙심이 반복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느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주와 함께 걸어가네 다같이

말씀봉독 여호수아 10:28~43절 다같이

설교 다시 일어나는 용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설교자

말씀나눔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같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의심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끝까지 싸우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 여호수아 10장에서 여러 성읍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지금 내 삶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